

BRIEF

발행인 | 김영진 편집위원 | 류유선·이유라 발행일 | 2023. 6. 30.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누구의 몫인가?

사람은 모두 늙고 병든다. 아픈 가족을 누가 돌보는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9백만을 넘었다. 고령 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돌봄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 역할은 가족,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노인 돌봄의 현주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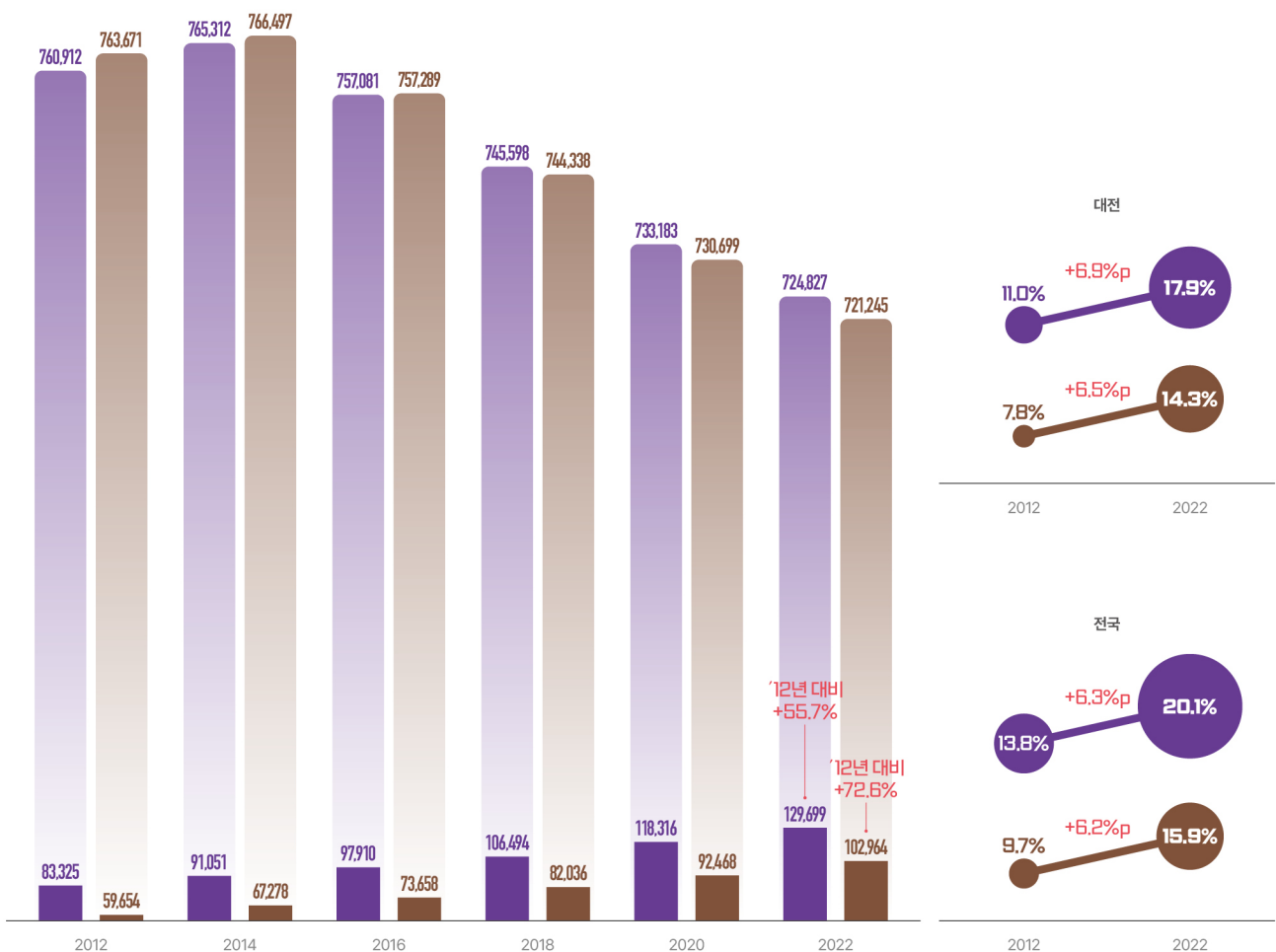
대전 65세 이상 인구 23만명 돌파, 전체 인구 대비 여성 17.9%, 남성 14.3%

대전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2018년 150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고령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전의 65세 이상 인구 23만 2,663명 중 여성은 129,699명, 남성은 102,964명이다. 2012년과 비교해 여성은 55.7%(+46,374명), 남성은 72.6%(+43,310명) 증가했다. 대전시 주민등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여성 2012년 11.0%에서 2022년 17.9%(+6.9%p)로 증가했고, 남성 2023년 14.3%로 10년 전보다 6.5%p 상승했다.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에 비해 돌봐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 고령인구

■ : 여성 전체 인구 ■ : 여성 65세 이상 인구 ■ : 남성 전체 인구 ■ : 남성 65세 이상 인구

단위: 명



· 고령인구 비율: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냄

= 65세 이상 인구 / 주민등록인구 × 100

·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장기요양이 필요한 여성노인의 75.9% 남성노인의 80.2% '자택'에서 돌봄 받아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75.9%)과 남성(80.2%) 모두 자택 비율이 높다. 2013년과 비교해 여성 9.2%p, 남성 8.2%p 증가했다. 그다음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기타,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자택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집에서 누구에 의해, 얼마나 어떻게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주거 현황(2021)



· 당해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으로 주거상태는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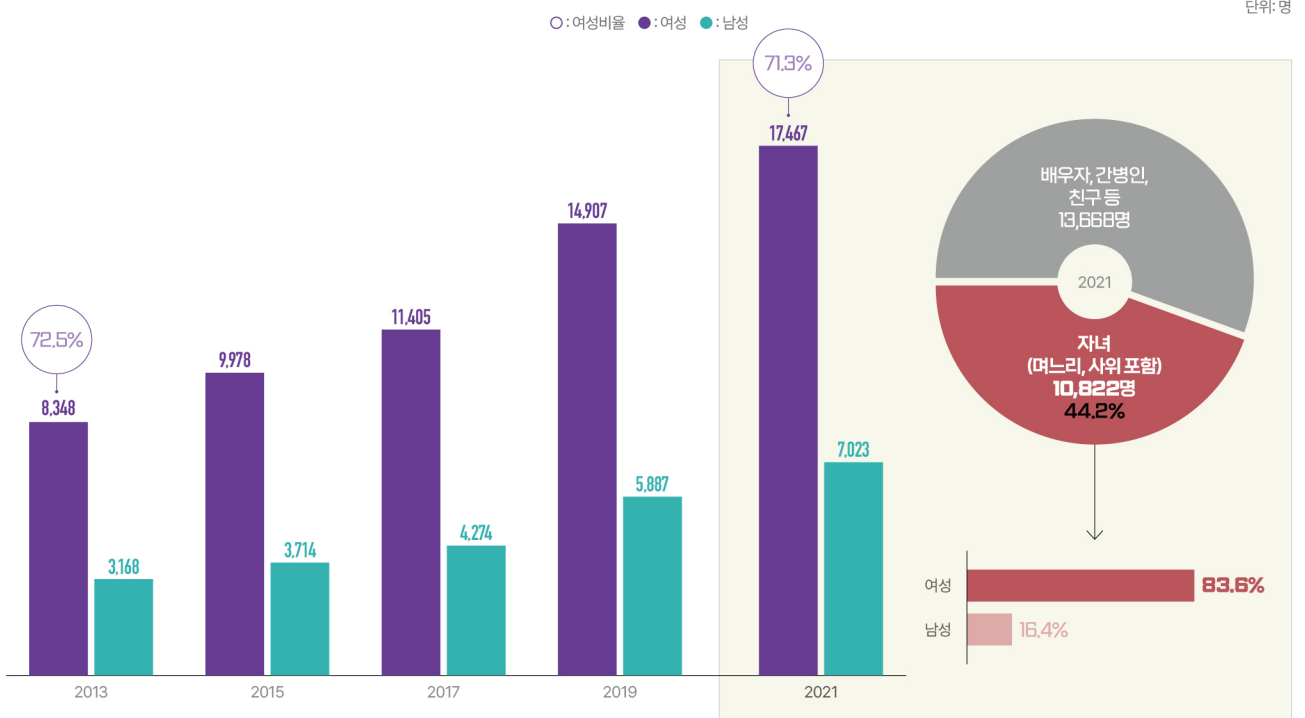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기타: 한센병 집단농원, 기타수용시설 등 포함

노인을 돌보는 10명 중 4명은 '자녀', 이 가운데 여성 비율 83.6%, 남성 비율 16.4%

여전히 노인 돌봄의 중요한 주체가 가족이고, 대부분의 돌봄제공자가 여성이라는 현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대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¹⁾ 수급자의 주 수발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노인 돌봄 비율은 2013년 72.5%에서 2021년 71.3%로 1.2%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한편 주 수발자 중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가 자치하는 비율은 44.2%로 가장 높고 대부분은 여성(83.6%)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은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데, 돌봄 제공에서는 가정이든 노동시장이든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주 수발자 현황



· 당해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으로 주 수발자는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 주 수발자 항목은 '독거', '배우자',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손자녀', '친척', '친구-이웃', '간병인', '자원봉사자', '기타'로 이루어짐

· 출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1)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병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등)

전국 노인실태조사

동거가족의 돌봄 받는 여성 노인 66.8%, 남성 노인 86.1%, 주 돌봄자는 자녀가 많고 딸 비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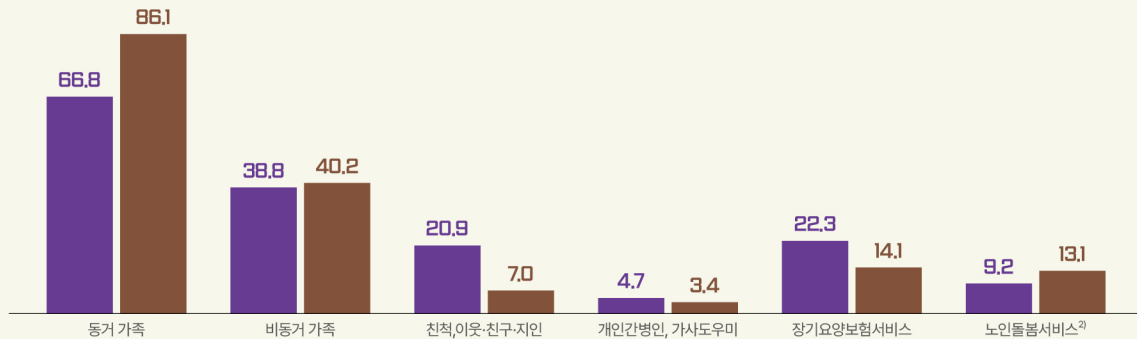
노인 돌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요양보호 실태 부문에 주목했다. 다만, 지역별로 세분화할 경우 표본 수가 적어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 자료를 활용해 살펴봤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차원에서 노인을 둘러싼 생활환경, 돌봄 실태와 욕구를 다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노인 돌봄수급 유형(중복응답)

노인이 제공받는 돌봄 형태에서 동거 가족원(여성 노인 66.8%, 남성 노인 86.1%)의 비율이 높고, 이어서 비동거 가족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도화된 돌봄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노인 22.3%, 남성 노인 14.1%이며, 노인돌봄서비스는 여성 노인 9.2%, 남성 노인 13.1%로 낮다. 여성 노인은 친척, 이웃·친구·지인에 의한 돌봄수급률(20.9%)도 남성 노인에 비해 높다. 여전히 노인 돌봄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개인적 관계에 있는 돌봄제공자의 역할이 크다.

● : 여성노인 ● : 남성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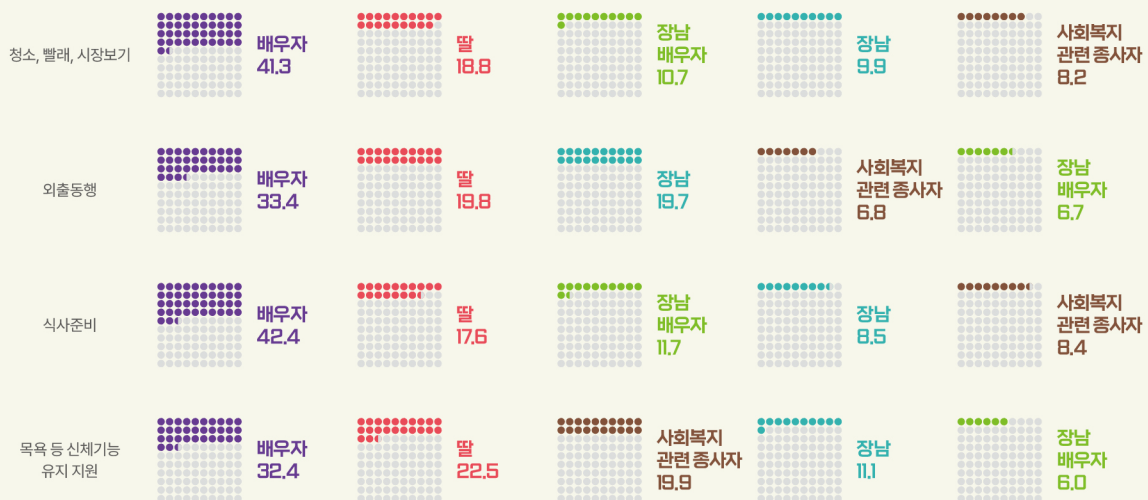
단위: %



돌봄내용별 노인 주 돌봄제공자 비율(상위 5명)

도움내용별 주 돌봄자의 가족 내 위치와 성별을 살펴보자. 모든 항목에서 돌봄제공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높고, 그다음 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외출동행의 경우, 장남이 19.7%로 딸(19.8%)과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청소, 빨래, 시장보기와 식사준비는 장남 배우자가 뒤를 이었다. 친자식, 장남보다도 '여성'이라는 점이 주 돌봄자가 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사 및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가족 내에서도 단단하게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단위: %



· 돌봄 유형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문항은 전체 응답자 중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계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항목 중 1개 이상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임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대소변 조절 등 자립 생활을 위한 7가지 기본항목으로 구성
 - 수단계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 집안일, 약 챙겨먹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 등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10가지의 기능상태 평가항목으로 구성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2) 가사간병서비스,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 각종 공공 돌봄 서비스 등

